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요인 분석

홍나미* · 정영순**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파악하고, 내적 요인인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적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남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남녀 청소년 2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t검정, ANOVA, Pearson's r, 다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부모 형태에 따라 자살생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교사지지가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인과모형을 구성한 변수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은 남녀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 자살생각의 인과모형이 42.3%의 설명력을 가진 반면, 여자의 자살생각에 36.4%만의 설명력을 가졌다. 넷째, 인과모형의 변수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이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여자의 경우 우울, 가족지지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남자 청소년에게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여자 청소년에게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개입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 문제제기

최근조사(윤성림, 1990)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35~55%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으며, 그 중 45%는 자살생각이 거의 항상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지난 몇 십년 동안 청소년의 자살행위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청소년 전체 죽음의 15%정도가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Calson & Cantwell(1982), Bonner & Rich(1987), Simon & Murphy(1985), Beck, Kovacs & Weissman(1979)은 자살생각의 문제는 이것이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살시도나

* 삼성생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 이화여대 교수

자살행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은 여러 조사결과(Paykel, 1974; Calson & Cantwell, 1982; Bettes & Walker, 1986; Rudd, 1990; Hodges & Siegel, 1985; 민병근 외, 1986)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자살생각과 자살간의 깊은 연관성을 볼 때,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도록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된다.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생각의 영향 요인들이 한국의 청소년들과는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살생각, 그리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구 뿐 아니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대한 개입전략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자살생각과 자살생각의 영향요인들이 남녀 청소년들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살생각의 개념

White(1982)는 자살생각을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로 정의하였다(최태산, 1997에서 재인용). Dubow et al.(1989)은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의 출발점으로 보았고 Beck, Kovacs & Weissman(1979)은 자살생각을 기점으로 자살기도, 자살위험, 자살시도, 자살로 이어지는 자살행위 중의 한 과정으로 보았다. Kumar & Steer(1995)에 의하면, 자살하기 위한 바람, 상상 또는 계획은 실제 자살 시도에 앞서는 과정이므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의 중요한 예언지표로 제시되어왔다고 하였다. 이런 정의들은 자살생각과 자살의 깊은 연관성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관성은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율과의 관계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Calson & Cantwell(1982)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심각했던 사람들의 42%와 경미했던 사람의 34%가 후에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

지 않았던 집단에서는 한 명도 자살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ttes & Walker(1986)도 자살시도를 한 청소년의 63%가 자살생각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Rudd(1990)의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43%가 지난해에 자살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다음해에 자살생각을 가졌던 청소년의 15%가 자살시도를 계획하였고, 6%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없으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충동율과 자살기도율을 연구한 민병근 외(1986)의 조사에 의하면 자살충동율이 높은 집단에서 자살기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러 연구들은 남녀간 자살생각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Dubow et al.(1989)의 지역사회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관한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은 45%, 남자 청소년은 28%가 자살생각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살생각의 성차에 관한 Bonner et al.(1992)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은 57%, 남자 청소년은 46%가 자살생각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살생각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런 연구들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자살생각이 자살시도의 중요한 위험 요인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자살생각이 경미하다고 해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자살생각은 더 심각한 자살생각으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기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개입전략을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2.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나라에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없는 실정이기에 외국의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정신과 환자의 자살생각을 조사한 Kumar & Steer(1995)에 의하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배경과 임상적 특징 12가지를 회귀분석한 결과, 오직 우울과 절망만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로모형을 통해 자살생각을 조사한 Rudd(1990)에 의하면 절망보다는 우울이 더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ole(1989)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절망보다 더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우울이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므로 자살생각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증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아 왔다. Greuling & De Blassie(1980)의 연구에서 지속적인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의 40%가 우울증상을 보였다. 남녀 모두 우울이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Lester & Gatto(1989)은 여학생에게만 우울이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Bonner et al.(1992)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에게만 우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과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Meneese & Yutrzecka(1990)에 의하면 임상 집단에서는 우울이 자살생각의 강력한 예측요인이지만 비임상집단인 일반청소년에게는 우울보다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부족한 가족지지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Harter & Marold(1993)는 부족한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우울증이 있는 임상 청소년 뿐 아니라 정상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De Man, Leduc, Labreche-Gauthier(1993)는 캐나다와 프랑스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조사결과 우울, 부정적 스트레스, 낮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만족, 약물 및 알콜 남용 등이 자살생각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역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ole, Protinsky, Kawrence(1992)의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이 많은 집단의 학생들이 자살생각이 적은 집단보다 빈약한 친구관계, 낮은 자아존중감, 더 많은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우울 다음으로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약물남용 등의 내적요인은 물론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친구관계 등의 외적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모든 연구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과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Cole, Wagner, & Schwartzman(1995)는 고등학생을 자살을 시도한 집단, 우울증과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게 보고된 집단, 우울하나 자살생각이 없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자살행동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 집단의 청소년들이 다른 두집단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Nelson(1987)은 불충분한 대처자원과 결합된 스트레스 사건이 자살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살시도는 물론 자살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더불어 자아존중감도 청소년시기에 활발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부적응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자살행동에까지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Bar-Joseph & Tzurel(1990), Durkes & Lorch(1989), Peck(1985)의 연구들은 자살위험에 있거나 이미 자살을 시도하였던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자아존중감이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존감은 자살생각을 완충하는 효과를 가진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하여 자살생각을 완충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

조되어 왔고 자살생각에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요인이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기에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도구 안에 의미있는 타자, 특히 청소년인 경우 가족 그리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가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자살생각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혹은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에 가족지지, 친구지지를 별도요인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요인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족지지, 친구지지 혹은 관계들은 여러 연구에서 별도의 요인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캐나다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부모-자녀 관계를 조사한 De Man & Leduc(1992)의 연구결과,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지가 부족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퀘벡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관한 Choquet, Kovess & Poutignat(1993)의 조사결과에서 가족관계의 불만족이 자살생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Wright(1985)는 높은 자살생각을 가진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자살시도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낮은 부모의 지지를 보고하였으며, 부부갈등과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Hirsch & Ellis(1993)는 자살위험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요인과 가족지지를 연구하였는데, 심각한 자살생각자들은 편부모가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은 가족의 지지, 부모와의 관계, 부모 사이의 불화, 부모형태 등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Kandel, Raveis & Davies(1991)의 연구에서는 부족한 동료와의 상호관계는 빈약한 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우울을 유발하여 자살생각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Hawton, Orborn & O'Grady(1982)의 연구에서도 동료와의 어려움은 청소년들 사이에 자살시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자살생각에서 친구지지의 중요성이 뒷받침되었는데, 친구지지의 영향은 Kandel, Raveis & Davies(1991)의 연구결과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가진 여자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가진 남자 청소년들보다 친구동료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하였다. Kandel, Raveis & Davies(1991)은 또한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은 중요한 사회적 제도인 가족과 학교와의 애착과 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친구관계의 학교의 주요요소인 교사와의 관계도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생각은 한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 절망,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약물남용, 사회적지지,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분석에서 우울과 절망이 공통적으로 자살생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여러 연구에서 우울이 절망보다 더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 절망보다는 우울을 자살생각의 요

인으로 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과 더불어 스트레스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아존중감도 자살생각에 완충효과를 가지는 요인임이 명백하다. 이에 우울과 더불어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자살생각의 영향요인 분석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약물남용은 본 연구가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에 약물남용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완충역할 요인을 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주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각 요소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회적지지 대신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별도의 요인으로 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밝힌 Lester & Gatto (1989), Bonner et al.(1992), Kandel, Raveis & Davies(1991)의 연구결과도 있지만,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결과(Munzer, 1995)도 있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남녀의 영향요인이 같다는 가정하에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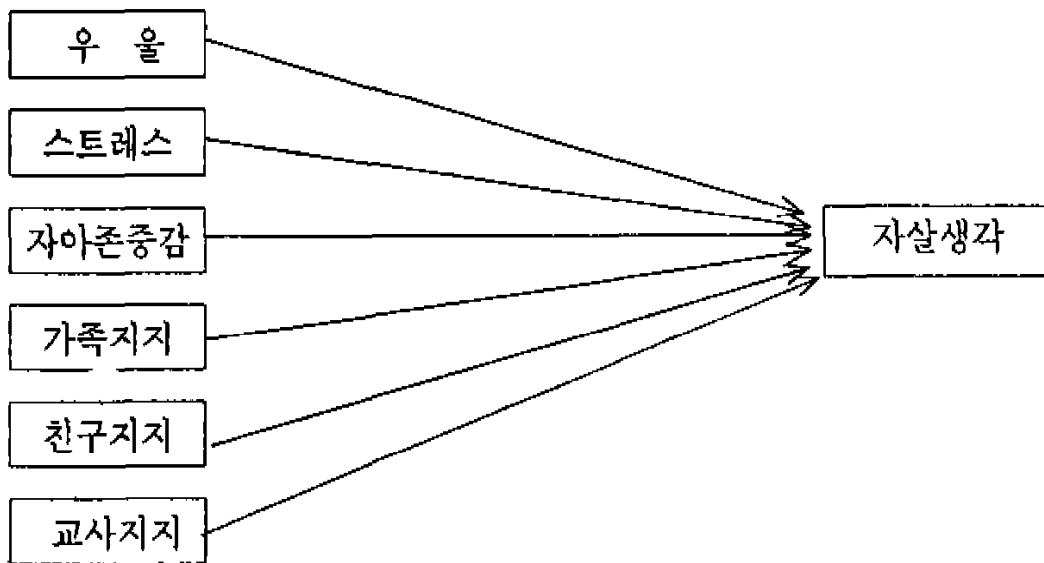
그러므로 남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같다는 가정하에 본연구에서는 내적 요인으로는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외적요인으로는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남녀 모두의 영향요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 요인들이 과연 한국의 남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서 남녀를 구분하여 연구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이러한 가설을 인과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1>과 같은데, 이 인과모형이 남녀 청소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를 구분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가설 1.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교사지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림1> 연구 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대상은 인천시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2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우선 인천시에 있는 25개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남, 여 고등학교를 각각 1개씩 임의로 선정한 뒤, 2학년 반에서 2-3개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여 해당학급의 학생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남자와 여자 고등학교의 한 학급당 인원수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남자는 2학년 8개 학급 중에 3개 학급 116명, 여자는 2학년 10개 학급 중 2개 학급 108명 총 224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4월 29일에서 4월 30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먼저 담당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담당교사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배포된 총 224부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내용이 부실한 12부를 제외하여 남자 109부, 여자 105부로 총 212부가 분석되었다.

3. 측정도구

자살생각,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했다.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신민섭(1992)이 사용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활용하였다. 30문항으로 이루어진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 않지만 자살 생각을 보인다는 관찰로부터 제작된 척도로, 신뢰도 계수가 $\alpha = .9611$ 이었다.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신민섭 외(1990)가 사용한 Zung Depression Inventory(ZDI)를 활용하였다. ZDI는 우울증 검사에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 신뢰도 계수 $\alpha = .6727$ 이었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Mendez등이 사용한 스트레스 생활 사건 척도를 홍원희(1992)가 우리나라 고등학생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alpha = .7870$ 이었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 Self-Esteem Scale(RSES)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 = .8266$ 이었다. 사회적지지 측정도구는 Dubow와 Ulman의 Social Support Scale(SSAS)를 참고로 하여 한미현(1995)이 제작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구분되었으며, 각 하위별 신뢰도는 가족지지는 $\alpha = .89$, 친구지지는 $\alpha = .88$, 교사지지는 $\alpha = .86$ 이었다.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부모형태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연구모형에 설정된 변수들간의 관계는 단순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조사 대상자의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총 212명으로 남학생이 107명(50.5%), 여학생이 105명(49.5%)이었다. 부모형태를 보면, 양친부모인 경우가 190명(89.6%), 편부모인 경우가 14명(6.6%),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가 8명(3.8%)으로 편부모 또는 계부모인 경우는 전체의 10.4%뿐이었다.

남녀로 구분하여 부모의 형태,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부모형태를 보면, 양친부모인 경우 남녀 모두 95명이고, 편부모인 경우는 남자 9명, 여자 5명으로 남자가 다소 많고, 계부모인 경우는 남자 3명, 여자 5명으로 여자가 다소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의 교육수준은 모의 교육수준보다 높으며 부모 모두 고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부모의 교육수준 차이는 거의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녀 모두 부모의 월수입이 150-2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 부모의 월수입이 여자 부모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분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형태,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월수입 차원에서 남녀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남자	여자	t
부모형태	전 체	107(100)	105(100)	
	친부모	95(90)	95(90)	.036
	편부모	9(8)	5(5)	
	계부모	3(2)	5(5)	
부의 교육정도	전 체	106(100)	104(100)	
	무학	1(1)	.	.569
	초졸	3(2)	3(3)	
	중졸	16(15)	12(11)	
	고졸	60(57)	67(65)	
	대졸	24(23)	19(18)	
	대학원이상	2(2)	3(3)	
모의 교육정도	전 체	107(100)	103(100)	
	무학	1(1)	1(1)	2.610
	초졸	14(13)	10(10)	
	중졸	31(30)	21(20)	
	고졸	56(53)	68(65)	
	대졸	5(5)	3(3)	
수입	전 체	103(100)	103(100)	
	100만원 미만	10(10)	10(10)	2.258
	100이상~150만	24(23)	29(28)	
	150이상~200만	28(27)	30(29)	
	200이상~250만	22(21)	23(22)	
	250이상~300만	19(18)	5(5)	
	300이상	9(9)	6(6)	

* P < .05 ** P < .01 *** P < .001

2.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한 점수는 180점이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자살생각의 평균은 29.40이었으나, 최소는 0점이고, 최대는 146점으로 한번도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대상자가 있는 반면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자살생각을 하는 대상자가 있음을 보여 조사대상자간의 자살생각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자살생각을 비교하였을 때, <표2>와 같이 남자는 평균 26.90(최소: 0, 최대: 140), 여자는 평균 31.98(최소: 2, 최대: 146)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자살생각을 한다는 Bonner et al.(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자살생각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t
전체	29.40	28.57	.00	146.00	
남자	26.90	28.34	.00	140.00	-1.27
여자	31.98	28.72	2.00	146.00	

평균값(명)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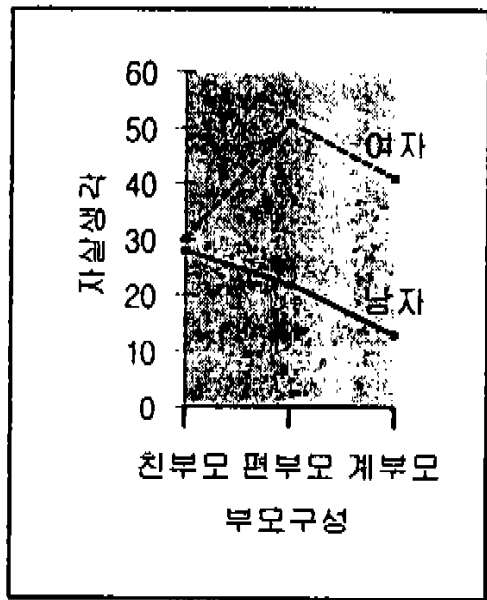
자살생각을 부모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았을 때, <표3>과 같이 친부모일 때 29.99, 편부모일 때 37.04, 계부모일 때 29.00으로 편부모가정의 학생들이 친부모와 계부모가정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과 부모구성에 따른 자살생각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
전체	29.99(183)	37.04(14)	29.00(8)
남자	27.86(92)	21.77(9)	12.66(3)
여자	30.43(91)	50.80(5)	41.20(5)

평균값(명)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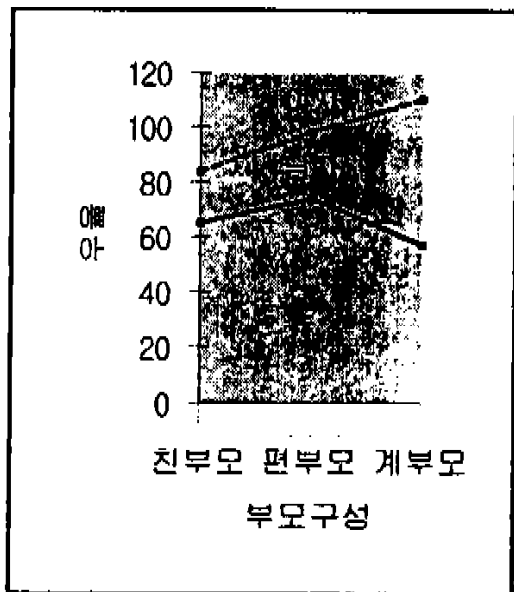


<그림 2> 부모구성과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부모형태에 따른 학생들의 자살생각을 다시 남녀로 구분하여 비교해보았을 때, <그림2>와 같이 부모구성에 따라 남녀간의 자살생각 정도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부모일 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자살생각에 큰 차이가 없는데 남학생일 경우, 친부모일 때 오히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학생인 경우에는 편부모 또는 계부모일 때 남학생보다는 훨씬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자살생각이 불안정한 가족에 게 널리 퍼져 있다는 De Man, Leduc & Labreche-Gauthier(1993)의 가설과 일치하고 있으나 남자의 경우는 이 가설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가족 상호관계를 더 생각하고 내재화한다는 Munzer, Sheldon-Keller & Sheras (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조사대상자의 우울



<그림 3> 부모구성과 성별에 따른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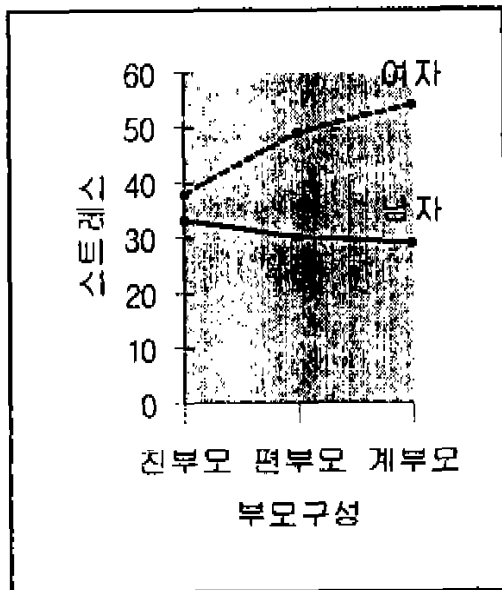
우울은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슬픈 감정을 측정 한 것으로 20점 만점인 우울 점수는 높을수록 더 우울함을 반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우울점수는 7.57이고 최소 1점이며 최대는 16점으로 조사대상자간의 우울 정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남녀간에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는 평균 6.51(최소 1.00, 최대 14.00, SD 3.00), 여자는 평균 8.62(최소 1.00, 최대 16.00, SD 3.34)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형태에 따른 우울상태를 보았을 때, 친부모일 때 7.74, 편부모일 때 8.28, 계부모일 때 9.00으로 계부모일 때 가장 높은 우울을 보였다. 이를 다시 남녀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림 3>과 같이 어떤 부모형태이건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계부모일 때 남녀가 다르게 우울을

경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남학생의 경우 계부모일 때 가장 낮은 우울을 보였는데, 계부모인 학생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4.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총 28개의 일상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지각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스트레스 점수는 112점 만점이며,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스트레스 점수는 35.84이었으나 최소점수는 1점, 최대 점수는 76점으로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여



<그림 4> 부모구성과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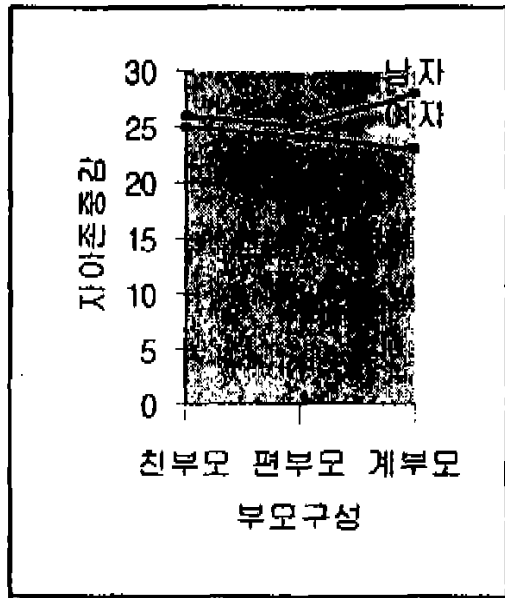
스트레스 점수를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평균 32.30(최소 1.00, 최대 70.00, SD 13.97), 여자는 평균 39.30(최소 13.00, 최대 76.00, SD 14.66)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형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친부모일 때 35.38, 편부모일 때 36.71, 계부모일 때 44.62로 계부모인 경우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 이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림 4>와 같이 친부모일 때 남녀간의 스트레스 정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편부모일 때 남녀간의 차이가 벌어지다가 계부모일 때 남녀간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의 차이가 벌어지다가 계부모일 때 남녀간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다.

5.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점수는 4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25.73이었으며 최소값은 12, 최대값은 38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남자는 26.27(최소 12.00, 최대 38.00, SD 4.61), 여자는 25.18(최소 16.00, 최대 35.00, SD 4.31)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부모의 형태에 따른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을 보면, 친부모일 때 25.83, 편부모일 때 24.78, 계부모일 때 25.12로 부모형태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그림5>와 같이 친부모와 편부모일 때는 남녀간의 자아존중감에 거의 차이가 없다가 계부모일 때만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친부모와 편부모일 때보다 계부모일 때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반면에 흥미롭게도 남자의 경우 여자와 상반되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그림 5> 부모구성과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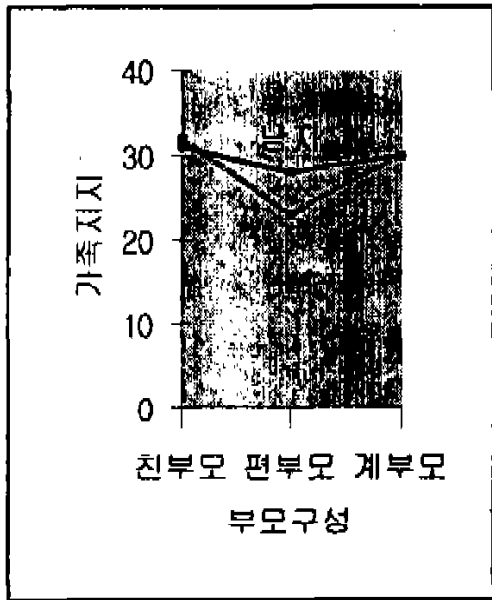
6.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기능적 측면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으며 가족, 친구, 교사라는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측정된 사회적 지지 점수는 12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것을 측정하고 있다.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의 지지가 다음과 같이 각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보다는 각 영역별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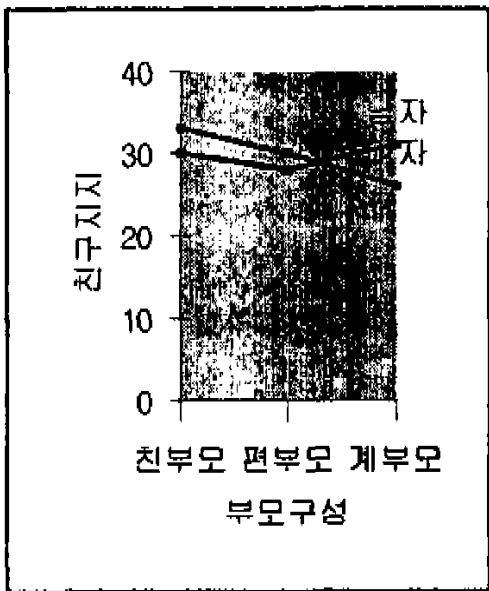
1)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40점 만점에 평균 31.34(최소 12.00, 최대 40.00)이었고, 남녀로 구분하여 가족의 지지를 비교하였을 때, 남자는 평균 31.07(최소 12.00, 최대 40.00, SD 6.21), 여자는 평균 31.61(최소 13.00, 최대 40.00, SD 5.29)로 남녀가 거의 차이가 없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형태에 따라 가족의 지지는 차이를 보여, 친부모일 때 31.77, 편부모일 때 26.35, 계부모일 때 29.87로 부모의 형태에 따라 가족지지의 차이를 보였다. 친부모인 경우 가장 많은



<그림 6> 부모구성과 성별에 따른 가족의 지지



<그림 7> 부모구성과 성별에 따른 친구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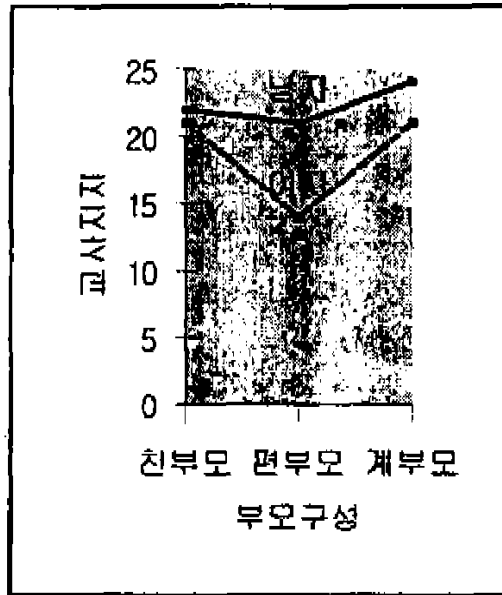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6>과 같이 부모의 형태에 따라 남녀가 비슷한 양상을 띄어 공통적으로 편부모인 경우가 가장 낮은 가족 지지를 나타냈다. 이는 친부모이건 계부모이건 양부모 가정이 편부모 가정보다는 더 나은 가족 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편부모일 때 훨씬 더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2) 친구의 지지

친구 지지는 40점 만점으로 가족의 지지와 비슷하게 평균 31.12(최소 15.00, 최대 40.00)의 친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로 구분하였을 때, 남자는 평균 29.78(최소 15.00, 최대 40.00, SD 5.21), 여자는 평균 32.46(최소 20.00, 최대 40.00, SD 6.67)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친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이러한 남녀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형태로 구분하여 친구의 지지를 보면, 친부모일 때 31.43, 편부모일 때 28.61, 계부모일 때 27.76으로 계부모인 경우에 가장 적은 친구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를 다시 남녀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그림7>과 같이 부모형태에 따라 남녀간의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자인 경우 편부모일 때 친구의 지지를 적게 지각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편부모보다 계부모일 때 더 적은 친구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3) 교사의 지지

사회적 지지 중 교사 지지는 40점 만점에 평균 21.23(최소 8.00, 최대 37.00)으로 가족이나 친구에 비해 교사로부터 지지를 낮게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남녀로 구분하였을 때, 남



<그림 8> 부모구성과 성별에 따른 교사지지

때, 남자는 평균 21.90(최소 8.00, 최대 33.00, SD 5.55), 여자는 평균 20.56(최소 8.00, 최대 37.00, SD 6.76)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형태에 따른 교사의 지지를 보았을 때, 친부모일 때 21.41, 편부모일 때 18.42, 계부모일 때 22.00으로 부모형태에 따라 교사의 지지에 차이를 보였다. 이를 남녀로 구분하여 비교해보면, <그림8>과 같이 부모형태에 따른 남녀간의 교사 지지 양상은 비슷하나 편부모일 때 여학생이 훨씬 더 교사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7. 자살생각과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들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은 모든 독립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스트레스와 친구지지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우울 증세가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게 되며 이러한 자살생각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남녀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표4>와 같이 다른 양상을 띄었다. 남자의 경우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많으며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상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자살생각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지지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교사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자의 경우 자살생각과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우울, 스트레스, 특히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낮아진 반면에 가족, 친구, 특히 교사의 지지와의 상관관계는 높아졌다. 이는 남자에게 내적 요인이 중요한 반면에 여자는 내적 요인은 물론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등의 외적요인이 자살생각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4> 자살생각,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남녀 비교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우울	1.00	1.00										
스트레스	-.52***	-.55***	1.00	1.00								
자아존중감	.37***	.46***	-.39***	-.39***	1.00	1.00						
가족지지	-.23*	-.23*	-.31**	-.32**	.20*	.18	1.00	1.00				
친구지지	-.20*	-.36***	-.09	-.19*	.27**	.42***	.21*	.21*	1.00	1.00		
교사지지	-.08	-.44***	-.13	-.30**	.24*	.61***	.09	.23**	.12	.36***	1.00	1.00
자살생각	.54***	.47***	.46***	.42***	-.54***	-.30**	-.35***	-.41***	-.08	-.32**	-.14	-.41***

* P < .05 ** P < .01 *** P < .001

남녀 모두 내적 요인인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적요인인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의 상관관계는 남녀가 다른 양상을 띄었다. 남자의 경우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남자와는 달리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에도 남녀가 다르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우울과 스트레스에 가족, 친구, 교사의 지지가 모두 관계하고 있지만, 자아존중감의 경우 친구, 교사지지와만 상관관계가 있고 흥미롭게도 가족지지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자아존중감에서 친구, 교사지지는 물론 여자와 달리 가족지지와 상관관계가 있고, 우울에는 가족지지, 친구지지만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트레스는 가족지지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의 내적요인에는 교사지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나 여자에게는 내적 요인에 교사지지, 친구지지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암시되고 있다.

8.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표5>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에 의하면, 제시된 인과모형의 설명력은 높은 편으로 자살생각의 36.4%를 설명하였다. 인과모형을 구성한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모두가 자살생각과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단지 우울, 가족지지, 스트레스만이 설명력이 있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심리적 증후로서 우울이 심각해지고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표 5>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상전체		남자		여자	
		Beta	T	Beta	T	Beta	T
우울		.34	4.43***	.37	3.61***	.31	2.75**
스트레스		.18	2.63*	.19	2.00*	.17	1.78
자아존중감		-.11	-1.40	-.24	-2.38*	.02	.24
사회적 지지	가족지지	-.20	-3.15*	-.11	-1.31	-.26	-2.91**
	친구지지	.00	.01	.16	1.85	-.13	-1.40
	교사지지	.05	.74	.02	.25	.04	.38
		R ² = .364***		R ² = .423***		R ² = .364***	

* P < .05 ** P < .01 *** P < .001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남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표5>와 같이 인과모형의 설명력과 변수들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 제시된 인과모형은 남자의 자살생각에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가져 남자 자살생각의 42.3%를 설명하였다.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가족지지가 자살생각과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단지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만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자살생각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가족지지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족지지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울 증후가 심각하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가 많은 남자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제시된 인과모형은 남자보다 설명력이 낮아 여자 자살생각의 36.4%를 설명하였다. 인과모형을 구성한 모든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단지 우울과 가족지지만이 자살생각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과 상관관계가 있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울 증후가 심각하고 가족지지가 낮은 여학생일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살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영향변수들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결과는 남녀의 자살생각을 다른 변수로 예측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남녀의 자살생각에 공통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우울이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살생각에 있어서는 우울과 스트레스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우울한 감정을 덜 느끼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자살생각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남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우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 청소년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는 여자의 자살생각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형태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의 가족지지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생각에 대한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다른 변수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남녀청소년의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주요 분석결과가 제시한 함의를 논의하여, 자살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개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남녀일반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차이를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교사지지는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는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울하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자아존중감도 낮은 편임에도 교사의 지지는 덜 받는 편이었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남녀간의 차이만 보아서도, 여자가 자살생각을 많이 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편부모와 계부모를 가진 표본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부모형태에 따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문제점이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기에 분석해보면, 친부모와 계부모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나 편부모일 때에는 상당히 많이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부모형태간에 차이가 없으나 계부모일 때 더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더 받고 친구지지가 적은 것으로 지각한 반면에 편부모일 때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를 덜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셋째, 위의 부모형태별 연구결과를 남녀로 구분해보면 부모형태에 따라 남녀간에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남자는 친부모일 때, 여자는 편부모일 때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영향변수에서는 부모형태간의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가족지지, 친구지지에 부모형태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자 청소년들이 빈약한 가족관계와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남녀 모두에 있어서 자살생각은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녀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의 상관관계가 다른 양상을 띄었다. 남자의 경우 우울증후가 심각하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상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자살생각과 친구지지, 교사지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여자의 경우 자살생각과 모든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남자보다 우울, 스트레스, 특히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가 낮아진 반면에 가족, 친구, 특히 교사의 지지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 이는 남자에게 내적 요인이 중요한 반면에 여자는 내적 요인은 물론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등의 외적요인이 자살생각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간에 자살생각과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에도 남녀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실제로 인과모형을 구성한 변수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이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음은 물론 설명력도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인과모형은 42.3%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으며 여자의 경우 36.4%의 설명력을 보여 인과모형이 여자보다 남자의 자살생각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우울,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반면 여자의 경우 우울, 가족지지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 자살생각에 대한 남녀간의 영향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이와같은 조사결과는 다른 요인으로 남녀의 자살생각을 예측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남자의 경우는 우울 증상이 심하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을 때 자살생각이 많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우울 증상이 심하고 가족지지가 낮을 때 자살생각이 많음을 예측할 수 있다.

상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우울이 자살생각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 우울 증후가 심각하게 나타나면 남녀 모두 자살생각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우울상태를 주목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자에게만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경우 남녀를 다르게 예측해야 할 것이다.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우울한 감정을 덜 받기에 남학생이 자살생각을 하는 경우는 여자보다 덜 하지만, 남학생이 스트레스가 많고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자살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에 여자의 경우는 높은 스트레스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자살생각을 많이 하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남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중요시된다.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울도 감소시켜 결국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녀간의 가족지지에 차이가 없고 가족지지가 남녀 모두의 자살생각과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가족지지는 흥미롭게도 여자의 자살생각에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편부모와 계부모일 때 가족지지를 상당히 적게 받는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가 또한 편부모와 계부모일 때에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여자의 자살생각에 있어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는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추론되고 가족지지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않지만, 가족지지와 우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로 미루어 보아 자살생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남자에게도 가족의 지지가 중요시된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편부모 또는 계부모일 때 가족지지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지지와는 달리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는 남녀 모두의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여자의 경우 친구 및 교사 지지가 자아존중감, 우울, 스트레스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살생각에 간접적이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남자에게도 이 두 변수가 어느 정도는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과해서는 안되고 친구지지와 교사지지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 자살생각을 다르게 개입하는 접근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추론되므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자살생각에 대한 개입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남자의 경우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우울을 감소시키도록 하고, 가능한 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하는 동시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며, 자아정체감을 회복시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여자의 경우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내적 요인인 우울을 감소시키도록 할 뿐 아니라 남자보다는 가족의 지지를 높이도록 하는 개입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살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가족치료

를 통해서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가족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가 지지적 환경 안에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촉진하며, 가족 안에서 구조를 재정의할지라도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써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또래집단도 남녀 청소년에게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유용한 개입책이 될 수 있다. 친구들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집단모임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울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증진시키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개입방법으로 친구지지는 물론 교사지지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교사의 지지를 강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학생, 특히 편부모, 계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입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사업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에 좀 더 나은 이해와 개입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한된 연구모형에 의한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대한 복합적인 인과관계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경로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편부모와 계부모를 가진 사례수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부모형태별로 좀 더 나은 개입방법과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편부모, 계부모인 가정의 사례수를 보완하여, 부모형태의 주요 효과(main effect)는 물론 성별과 부모형태와의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규명하며 부모형태에 따라서도 인과모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민병근, 이길홍, 이재광, 김현수, 박두병, 나철, 박광식. 1986.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살 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 과학. 18. pp. 20-29.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pp. 1-19.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1991. "우울증과 충동성이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0(1). pp. 286-297.
- 신민섭. 1992. "자살기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동호, 이홍식, 전여숙, 정유숙. 1996. "청소년 자살기도자의 정신의학적 특성". 신경정신 의학. 35(6). pp. 1366-1374.
- 윤성림. 1990. "자살생각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임수영. 1995.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최태산. 1997. "청소년 비행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가족역동의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박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재인용.
- 한미현. 1995.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원희. 1992. "성격특성이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성신여대.
- Beck, A. T., M. Kovacs and A. Weissman.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 Psychology*. 42.
- Bettes, B. A., and E. Walker. 1986. "Symptoms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4.
- Bonner, R., and A. Rich. 1987. "Toward a predictive model of suicidal ideation an behavio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7. pp. 50-63.
- Bonner, R., A. Rich, J. Kirkpatrick-Smith and E. Jang. 1992. "Gender Differences in the Psychosocial Correlation of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c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2(3). pp. 364-373.
- Calson, G. A., and D. P. Cantwell. 1982. "Suicidal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

- Choquet, M., V. Kovess and N. Poutignat. 1993. "Suicidal Thoughts among Adolescents : an intercultural Approach." *Adolescence*. 28(111). pp. 649-659.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 Cole, D. E., H. O. Protinsky and L. Cross. 199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dolescence*. 27(108). pp. 813-818.
- Cole, R. E., B. M. Wagner and P. Schwartzman. 1995.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al Attempts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Youth."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3). pp. 358-372.
- Davis, J. M. 1985. "Suicidal Crises in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14
- De Man, A. F., and C. P. Leduc. 1992.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Suicidal Ideation in French-Canadian Adolesc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1). pp. 17-23.
- De Man, A. F., C. P. Leduc and L. L. Labreche-Gauthier. 1993. "Correlations of suicidal ideation in French-Canadian Adolescents: Personal variables, Stress, and Social Support." *Adolescence*. 28(112). pp. 819-830.
- Dubow, E., D. Kausch, M. Blum, J. Reed and E. Bush. 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 Child Psychology*. 18(2). pp. 158-166.
- Harter, S., and D. Marold. 1993. "Psychosocial Risk Factors Contributing to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64.
- Hawton, K., M. Orborn and J. O'Grady. 1982. "Classification of Adolescent Who Take Overdose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0. pp. 123-131.
- Hirsh, J., Eliis, J. 1993. "Family Support and Other Social Factors Precipitating Suicidal Ide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 Association(101st, Aug)*
- Kandel, D., V. Raveis and M. Davies.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pp. 289-309.
- Kumar, G., and R. Steer. 1995. "Psychosocial Correlation of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25(3). pp. 339-346.
- Lester, David, and Gatto Jeri-Lynn. 1989. "Self-Destructive Tendencies and Depression as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Teenagers." *Journal of Adolescence*. 12(2).

- Meneese, W. B., and B. A. Yutrzenka. 1990.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mong Rural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3). pp. 206-212.
- Munzer, J., A. Sheldon-Keller and P. Sheras. 1995, "Pathway of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Poster presentation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nnual Convention*. New York.
- Nelson, F. L. 1987. "Evaluation of a youth suicide prevention program." *Adolescence*. 22
- Paykel, E. S., J. K. Myers, J. J. Linderthal and J. Tanner. 1974. "Suicidal Feelings in the General Population : A prevalence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4. pp. 460-467.
- Peck, M. L. 1985. "Crisis intervention treatment with chronically and acutely suicidal adolescents". *Youth Suicide*, New York : Springer
- Rudd, D. 1990. "An Integrative model of suicide Ide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0(1).
- Simon, R. L., and P. Murphy. 1985. "Sex Differences in the Causes of Adolescent Suicide Ide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 Stanley, M., and B. Stanley. 1988. "Reconceptualizing suicide: A biological approach." *Psychiatric Annals*. 18. pp. 646-651.
- Wright, L. S. 1985. "Suicidal Thoughts and their Relationship to Family Stress and Personal Problems among High School Seniors and College Undergraduates." *Adolescence*, 20, pp. 575-580.

Abstract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Hong, Na Mi · Chung, Young 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psycho-soci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stress, self-esteem, and support from family, friends, and teachers. Data from a sample of 224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ophomore students.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suicidal ideation. However females reported greater suicidal ideation than males. Secondly, there wer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stress, self-esteem, and support from teachers. Thirdly, the variables in the cause model accounted for 42.3% for males, and 36.4% for females, of the variance in suicidal ideation. Fourthly,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the predictive power of variables within the cause model for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self-esteem, and stres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males. On the other hand, depression and lack of family support were shown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femal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following approache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decrease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With males self-esteem should be strengthened, depression should be reduced, and stress should be managed. With females family problems need attention, and depression need to be reduced.

TEL : 02-3277-2257, 3522

FAX : 02-3277-2097

E-mail : yschungewha@hanmail.net